

脫冷戰時代의 北韓民族主義와 社會主義

金昌順*

지금까지 김정일의 사상적 正體는 김일성의 분신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간으로서는 2인이지만 정치이념과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一軀兩頭의 二人一身이었다. 물론 大頭는 金日成이고 小頭는 金正日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김일성을 위대한 정치적 수령과 사상이론가로 내세워 그가 朝鮮勞動黨의 創建者이며 領導者임을 公然化하고 절대화하기 위해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黨史化하고 國史化하는 시대에 始發的으로 형성되었다. 1967~68년 기간에 김정일이 黨宣傳煽動部의 과장 및 부장으로 있으면서 김일성 혁명전통의 神話創造를 위한 思想敎育事業에 전념하다가 73년 9월에 黨組織 및 宣傳煽動秘書로 임명되면서 一體性原理의 세습체제에 들어간 사실을 말함이다.

특히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黨政治局 5인 상임위원 중 1인이 된 김정일은 자신의 후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김일성 美化를 더욱

* 北韓研究所 理事長

극대화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1980년대가 개막되면서 김일성의 위대성을 극대화하는 개인숭배가 이론적으로 더욱 다듬어지고 정치적으로 더욱 체계화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김일성을 독특한 의미의 '首領'으로 敎條化하여 首領·黨·大衆을 하나의 사회적 생명체로 구조화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을 가지고 首領·黨·階級·大衆의 四位一體의 상호관계를 설명해 왔다면 이제

1) 북한 <정치사전> pp.324-326, p.648. 사회주의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3년 12월 31일.

① "수령은 인민들 속에서 그 무엇으로도 허물 수 없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정치적 영도자이다. 노동계급이 진행하는 혁명투쟁에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領導問題는 가장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수령은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② 本是 공산당의 수령론은 레닌의 논문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左翼小兒病>에 들어 있는 "독일의 左翼共產主義와 首領·黨·階級·大衆"이란 항목에 나온다. 여기서 레닌은 "정당은 통령로 가장 권위있고 유력하고 경험있고, 가장 책임있는 지위에 선발된 수령이라고 불리는 인물들로 되는 다년간 고정된 사람들에 의해 지도된다"는 것으로 시작하여 공산당에서의 首領·黨·階級·大衆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③ 북한 <정치사전>은 레닌의 상기 논문을 模造하여 마치 자기들의 창조적 이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④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북한의 김일성 개인숭배정책은 김정일의 주도에 의해 김일성을 불가능을 모르는 전지전능의 절대자—수령으로 美化했다. 이에 대해 중공당기관지 '人民日報' (1980년 9월 18-19일)는 李洪林의 記名論文을 통해 다음과 같이 痛駁했다.

⑦ ① 수령론이란 봉건사회에서의 논리이다.

② ② 인민과 '인민의 수령'과의 관계는 平等關係이지 從屬關係가 아니다.

③ ③ 인민이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지 수령이 임의로 조작되거나 수령에 의해 인민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④ ④ 개인우상화는 일종의 미신이며 인민을 비천시하는 것이다. 개인 신격화 우상화는 反마르크스주의적 唯心史觀이다.

⑤ ⑤ 소위 '黨中央'이란 당중앙위를 지적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어느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일 수 없다(김정일을 '당중앙'으로 상징조작하는 데 대한 반론)

부터는 김일성 숭배에 대한 종래의 수준을 더욱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령은 사회정치집단의 最高 腦髓이다”²⁾는 新首領論으로 대체시켰다.

김정일은 이 新首領論에서 首領·黨·大衆의 絢연적 통일체가 사회정치집단이며 김일성은 이 집단의 最高 腦髓인 수령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인간을 物質視하는 유물론에서는 모든 동물의 腦髓가운데 최고의 뇌수는 人間腦髓라고 규정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개별적 사람들의 뇌수와 수령의 腦髓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개별적 사람들의 腦髓는 各人의 생명의 중심이고 수령의 腦髓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라는 것이다.³⁾ 이 논리에 따르면 김정일이 말하는 김일성의 腦髓는 한 인간의 腦髓일 뿐 아니라 사회정치집단의 最高 腦髓라는 것이다.敷衍한다면 사회정치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거기에는 그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개별적 사람들의 腦髓는 개개인의 생명의 중심이다 뿐이고 사회정치집단의 생명은 이 집단의 최고 腦髓인 수령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首領-黨-階級-大衆의 四位一體의 상호관계라고 했을 경우 당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김정일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이며 이는 자주적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⁴⁾고 했다. 그렇다면 무산계급 곧 대중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김정일은 “개별적

2) <조선중앙년감>(1987년판) pp.160-170. <黨中央委員會 責任일꾼들과의 談話>('主體思想 敎養에서提起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3) 상계서 p.166

4) 상계서 p.167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수령과 조직적 사상적으로 결합되어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永生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⁵⁾ 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논문(담화)의 ‘규정’에 대하여 질문을 발할 필요성을 느낀다. 물론 그에 대한 답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지만, 즉 대중이 수령과 조직적 사상적 결합을 같이 하지 않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과 답이다. 이 논문은 대중이 조직적 사상적으로 수령과 결합되지 않으면 사회정치적 생명의 영생은 없다는 명쾌한 답을 피하고 있다. 왜냐? ‘인민이 주체냐, 수령이 주체냐’를 명쾌히 가늠하기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 있어서 李洪林의 논문(人民日報, 1980년 9월 18-19일자)에 “인민의 수령과의 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니며 인민이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지 수령에 의해 인민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북한의 수령론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좋은 대조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동경 대학의 和田春樹 교수는 북한의 이론 정책가들이 “黨을 ‘中樞’라고 했다가 후에 ‘心臟’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발전시켰다고 했다. 김정일의 논문대로 수령이 腦髓이고 당이 심장이라면 대중은 무엇이겠느냐는 물음이 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⁶⁾고 전제하고 “고대로부터 중세에 걸친 國家人體論의 흐름에서는 대중을 수족으로 다룬 것이 명백하다. 遊擊隊國家로서의 북조선국가의 디자인(De-sign)으로서 이래도 좋겠느냐”⁷⁾고 묻고 있다. “주체사상”에서는

5) 상계서 p.167

6) <世界>, 1993년 10월호, p.276. <遊擊隊國家の成立と發展>, 東京.

7) ① 前掲書, 북한 <정치사전>, p.1055

※ 김일성 ‘우리 黨의 主體思想과 共和國政府의 對内外政策의 몇 가지 問題點에 대하여’ p.1, pp.5-6, p.12-13

② <김일성저작선집>, 5권, pp.504-505

③ <김일성저작선집>, 4권, p.533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대중을 수령과 당의 수족밖에 안된다고 했어야 表裏가 너무도 不同하지 않은가. 또 그것은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논문(주 2 참조)이 엄청난 모순관계를 露呈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 사실에서 본다면 김정일의 이념정책가로서의 수업은 아직 미숙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그 논문(주 2 참조)은 개인적인 작품이 아니고 당의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수업미숙에 돌릴 성질의 것이 못된다. 오히려 무엇 때문에 김정일의 담화논문에 김일성의 권위를 그토록 당의 최고 腦髓로까지 至高至大하게 극대화시켰는가에 있다.

김정일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제6차 당대회에서의 김정일시대(서열公然化)의 개막과 전개는 김정일의 후계권을 조속히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같은 분위기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김정일은 1980년대 중반까지의 과정을 통해 실무 수준의 국정을 대체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나머지 문제가 있었다면 자신의 후계권에 대한 김일성의 意中을 不動으로 다져놓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新首領論의 형식으로 김일성의 권위를 당의 最高 腦髓로 至高至大하게 굳혀 놓게 된 것이다.

김일성의 의중은 김정일의 효심에 흡족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어버이수령', '어머니黨' 등을 내세워 黨思想敎養事業을 집중적으로 전개했지만 그 모든 캠페인보다 김정일이 내세운 最高 腦髓論의 新風과 지적수준이 김일성의 영웅주의적 심리를 더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들의 김일성부자체제에 대한 논평 가운데 동양풍의 충효개념에 대한 관심이 큰 것도 김정일의 지극한 효성이 가져온 효과가 아니겠는가. 동시에 '사회주의체제와 충효'라는 역설적인 모델을 보

여준 것이기도 할 것이다.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로 넘어간 몇해 동안은 世界史的으로 대전환의 시기였다. 자본주의의 대체이념으로 등장했던 사회주의가 퇴조하면서 탈냉전의 新秩序가 편성되는 세기적 변화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한반도에도 세계 변화의 大潮流가 상륙했다. 즉 1980년대말에 발생한 東歐共產圈의 붕괴적 변혁으로 1989년 2월에는 헝가리, 동년 11월에는 폴란드, 1990년 3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및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각각 한국과 국교를 체결했다.

북한은 당황했다. 자기네의 동맹국들이 눈사람(雪人)처럼 녹아 무너지면서 한국과 관계정상화에 들어가게 되자 1990년 4월 법정기한보다도 7개월이나 앞당겨 제9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하고 체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동구사태의 영향이 과급되기 전에 권력관리에 단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선거를 통해 32%에 해당하는 종래의 대의원들이 물러나고 심심한 충성의 신세대 대의원들을 확보했다. 탈냉전의 新秩序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제치더라도 끄떡도 없다는 철의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지의 실천이었다.

1990년 5월 24일 김일성은 자신의 제9차 정권의 施政演說을 통해 통일실현을 위한 5개항의 문제해결을 요구했는데 마지막 항목에서 전민족적 통일전선형성을 요구했다. 통일전선전술은 전통적으로 공산당의 공개전술이다. 따라서 김일성의 "전민족적 통일전선"도 공개적으로 내놓은 전술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겠으나 東歐共產圈이 무너지는 마당에서 민족주의적 호소를 강하게 발한 것은 체제유지를 위해 민족주의의 旗幟를 높이 들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못하는 것이었다.

1991년 2월 25일 '로동신문'은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는 구호를 담은 9천5백자의 大論說을 게재했다.⁸⁾ 이 논설은 '민족'이란 단어를

165회나 등장시켰는데 그 중에는 '우리 민족 제일주의', '民族 尊嚴과 利益', '자기 조국 자기 민족', '우리 민족 제일이다', '金日成을 民族의 어버이로' 등의 주장이 들어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朝鮮勞動黨機關紙로서 하루도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을 멈추지 않았던 '로동신문'이 이날따라 태연스럽게 민족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니 당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당혹한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종래의 사회주의 一邊倒에서 민족주의 鼓吹로 전술적 변신을 선택했다고 感知한 사람들은 "북한에도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런데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은 그와는 달리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必勝不敗이다'⁸⁾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인류가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역사발전의 법칙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끝없는 행복과 참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고 있다"¹⁰⁾고 했다.

이 주장은 2개월 10일전에 '로동신문'을 통해 민족주의의 기치를 고양했던 것과는 판판이다. 왜 이와같은 현상이 노출되었을까.

김일성 말기에 平壤政局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간에 마찰이 발생하여 一軀兩頭體制의 一體性を 의심케 한다는 미확인 정보가 나돌기도

8) '로동신문', 제2면, '당의 영도 밑에 민족의 존엄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 1991년 2월 25일자, 평양.

9) '로동신문', 제1면, '人民大衆 中心의 우리식 社會主義는 必勝不敗이다', 1991년 5월 27일자 평양.

이 論文은 '朝鮮勞動黨 責任일꾼들과의 對話'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10) 同上.

했다. 만일 民族主義旗幟가 김일성의 주장이고 사회주의고수가 김정일의 주장이었다면 1991년 2월 25일자 '로동신문'의 논설은 명백한 김일성의 주장이다.

이같은 양자의 대립으로 보여지는 주장은 김일성 사망전까지 계속된다. 즉, 其後 1991년 8월 5일자 '로동신문'은 제1면 전면에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라는 담화문을 게재했다.¹¹⁾

이 담화문은 종래의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호소와 사회주의의 대남수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로지 민족에 의한 민족통일을 주장하면서 "민족"이란 단어를 221회나 등장시켰다. 이 점에 있어서 김일성은 탈냉전시대의 도래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 제부터는 사회주의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를 앞세워야 한다는 전환기사상을 철학으로 삼은 모양이다. 적어도 민족통일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컨대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 담화문은 공산주의자인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변호할 필요를 인정했음인지 스스로를 "나는 공산주의자이지만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담화문에서 김일성은 스스로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儒敎主義者임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다. 즉 "자기의 부모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

11)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자) 제1면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하신 담화'.

럼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세계혁명에 충실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담화문은 철저한 민족주의 예찬으로 掉尾를 裝飾하고 있다. 즉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존엄있고 힘있는 민족으로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7천만 이상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偉力한 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우리나라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온 겨레가 하나로 단결되고 조국통일이 실현되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다”고 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김일성 담화문은 이보다 꼭 3개월전에 발표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必勝不敗이다’는 김정일의 담화문 論調와는 맞지 않는다. 김일성 담화문은 민족주의의 고취와 예찬이고 김정일의 담화문은 사회주의 고취와 예찬이다.

탈냉전기의 도래와 더불어 양자의 담화문은 왜 이렇게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는가. 김일성의 경우는 탈냉전의 국제사회와 민족사회에 대하여 더 이상 계급주의적 사회주의를 호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인식하고 분단국가적 상황에 적응하는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을 택한데 대하여 김정일은 대내중심의 指導理念을 脫冷戰以前과 마찬가지로 社會主義 堅持의 一貫性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양자는 각각 별개의 입장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탈냉전기에 처하여 “어떻게 살아 남아야 할 것인가”의 전략에 있어서 김일성은 국제사회와 海內外의 동족사회를 의식한 민족통일의 이념전선을 담당했다면 김정일은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관계없이 여태까지의 一國社會主義建設의 이념전선을 담당한 것이다.

이같은 이념전선의 분담은 分立的 담당이 아니라 다만 分化的 담당이었다고 본다. 만일 분립적 담당이었다고 본다면 김일성의 독자성과 김정일의 독자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김일성의 의도(戰略)에 의하여 김정일의 임무가 전술적으로 수행된 것이라면 그것은 독자적 분립행동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분화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 관계를 誤認하면 마치 김일성과 김정일이 힘겨누기를 하는 派爭으로 보게 된다. 필자가 지켜보기에는 김일성은 권력관리에 아주 용의주도했다. 김정일을 후계자로 다년간 수행시키면서도 그가 父權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충효사상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兩人은 통치이념과 체제관리에 있어서 一體性 원리를 파괴하지 않았다. 권력을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宮中悲話는 김일성과 김정일 간에는 없었다. 오히려 任務遂行의 분립이 아니라 분화에 의하여 권력의 일체성원리를 지켜왔다. 그 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인식된다.

김일성이 1991년 8월 5일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統一理念의 민족주의원리"를 발표한지 8개월이 되는 1992년 1월 3일 김정일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를 발표했다. 中央放送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總路線'¹²⁾이라는 것이었다. 이 담화논설에서 김정일은 탈냉전시대에 도전하는 대담한 논조를 전개했다. 즉, "最近年間 일부 국가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復歸되었으며 얼마전에는 소련이 해체되어 존재를 끝마쳤다. 이러한 사태를 놓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마치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 것처럼 떠들

12) 중앙방송, 1992년 1월 3일, '社會主義建設의 歷史的 敎訓과 우리 黨의 總路線', 平壤.

고 있다. 이것은 사태의 진상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속에서 사상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세계혁명발전에 심각한 後果를 미치고 있다. 오늘날 조성된 시대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기초위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며 사회주의 위업을 昂揚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전반적 역사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류가 사회주의로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역사발전의 법칙이다”¹³⁾고 했다.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마르크스도 오늘날의 세상을 미처 내다보지 못했다고 비평했고 ‘其間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온 일부국가의 당들도 마르크스주의를 敎條主義적으로 적용했는가 하면 마르크스주의의 革命的 眞髓를 부정하고 수정주의적 정책을 실시했다고 비방했다.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과 毛澤東 死後의 중국의 개혁정책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방했다. 즉,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국가의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고 노동계급적 입장이 확고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앞에서 동요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점차 혁명적 원칙을 양보하고 파기하는 길로 나아갔다. 이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와 경제관리방법을 받아 들이고 제국주의와 투쟁할 대신에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데로 나아갔다. 이같은 수정주의정책의 결과로 사회가 점차 변질되어 갔으며 사회주의를 개혁하고 개편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를 끌어 들임으로써 사회주의의 변질과정은 더욱 촉진되었다”¹⁴⁾고 했다.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될 수 없다”고

13) 同上.

14) 同上.

확고하게 규명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는 자본주의가 허용될 수 없다. 자본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와 정치에서의 多黨制, 소유에서의 多樣化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방식이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이므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¹⁵⁾고 극론했다.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무엇이 조선노동당의 총노선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하고 있다.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하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탁월한 사상을 내놓았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總路線이다”¹⁶⁾고 했다.

탈냉전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자본주의를 배격하고 공존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극언하는 김정일의 사상적 입장은 확고하다. 그는 김일성을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인 수령이라고 하면서 오직 김일성만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집단주의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고 했다.

조선노동당의 총노선을 밝히는 김정일은 사소한 수정도 없이 김일성의 창업인 DPRK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탈냉전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개혁·개방하겠다는 수정주의 정신은 털끝만치도 없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는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낡은 것으로 처

15) 同上.

16) 同上.

리하고 있다.

북한은 마르크스주의를 쓸모가 없게 되어 사실상 버렸다는 선언을 1991년 9월 13일 副總理 겸 外交部長 金永南으로 하여금 JANE'S DEFENCE WEEKLY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행한 바 있다.¹⁷⁾

김영남은 통치이념의 최고 해석권자가 아니다. 적어도 김일성이 살아 있고 그의 대행자 김정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고 안버리고 하는 문제는 절대로 김영남의 소관일 수 없다. 다만 편의상 외교부장인 김영남으로 하여금 적당한 기관을 택하여 선언케 하였을 뿐이다.

마르크스주의를 버렸다고 선언한 북한은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제9기 5차)에서 김일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全民族 大團結 10大綱領”을 姜成山 總理의 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기보다는 민족이라는 혈연적 동질성을 내세우는 것이 유익하다는 탈냉전시대의 객관적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민족통일이념을 혈연적 동질성의 민족주의로 전환시킨 북한은 1993년 9월 김일성의 發議로 檀君(고조선 시조) 추앙을 생활규범으로 등장시키고 1994년 10월 드디어 단군릉을 준공시켰다. 이것도 김일성 생시의 發起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遺業이다.

마침내 1995년 1월 9일 국영 평양방송은 “오늘 우리 민족은 수령

17) 북한이 마르크스주의를 버렸다는 金永南의 宣言이 왜 慣用的인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마르크스주의”라고 했는가에 대하여는 그 선언의 요지가 “마르크스주의는 북한의 현실에도 맞지 않고 또 북한은 근본적으로 서구의 역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究明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소련군정에 의하여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근대적 민족국가에 도달한다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발전모델이 적용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버린다고 하지 않고 “마르크스주의를 버렸다”는 용의 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을 시조로 하는 金日成民族이고 우리나라는 수령이 세운 金日成朝鮮"이라고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을 통하여 북한은 탈냉전시대인데도 이에 적응할 가능성은 전무할 뿐 아니라 개혁·개방을 범죄시하는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反動的으로 金日成主義崇拜¹⁸⁾의 "金日成民族·金日成朝鮮"으로 盲動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本稿는 1996년 4월 2일 홍콩에서 북한연구소와 홍콩 珠海大學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國際學術會議에서 발표한 論文임.

18) '金日成主義'라는 용어는 1970년대초에 김정일이 만들어낸 것으로서 분석가들의 批判對象으로 되었다. 中共黨에서는 恒用 '毛澤東思想'이라고 쓴다. 毛澤東主義라고 쓰지 않는다. 필자의 이해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라고 하는 것은 혁명운동의 원리임을 인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모택동사상이라고 하는 경우는 ML주의의 원리를, 중국의 현실과 역사적 제약성에 적용한 전략전술이라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북한이 굳이 '金日成主義'라고 자처하면서 ML주의와 同格化하는 것은 小英雄主義的 타락이 아닌가 사료된다.